

산업부, 중소기업 R&D 인력 및 기술지원에 288억원 지원

780개 기업에 850여명의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인력 부족으로 기술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한 '14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주요 사업내용〉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233억)	· 파견지원
	- 연구소 (출연연, 전문연) 고급연구인력 기업 파견 (245명)
	· 채용지원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 (55억)	· 재직 R&D 인력 역량 강화 (20~30명)
	- 신규 이공계 석·박사 채용 (550명)
	- 경력직(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퇴직인력) 채용 (30명)
	· 기술애로 진단 및 처방 (약 500건)
	·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서비스 (214건)

먼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지원 기업의 성과 수요에 따라 인력 '파견지원'과 '채용지원'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지원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파견지원'은 공공연구기관의 경력연구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채용지원'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동안 신규 석·박사 채용에 국한되

었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채용 즉시 활용 가능한 대기업·연구소 등의 경력직 채용시에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신입인력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R&D 인프라(전문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실무교육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시범)함으로써 신규인력 확보 뿐 아니라 재직인력 역량강화 및 고급경력인력 수혈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R&D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에 대해 기술코디네이터의 무상 진단·처방 및 필요시 단기 R&D 과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공공연구기관 및 공대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코디네이터 50명이 기업이 신청한 기술애로에 대해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R&D 과제화하여 연구가 필요한 경우 40백만원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 25개 공과대학 교수 30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기술코디네이터로 참여하여, 지방소재 대학교수 및 대학 보유 인프라(네트워크, 장비 등) 활용 등을 통해 지방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동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 주관기관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4)